

HEADLINE NEWS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20/20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 추진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승용차 이용, 가정의 냉·난방 등 각종 에너지 소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1인당 평균 5톤에 육박하자, 시 공중보건국과 유관 협력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에너지 보전 프로그램인 「20/20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지하철, 버스, 승용차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제어인 「20/20」은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 20% 저감, 자동차 이용 20% 억제를 의미한다.

시공중보건국은 이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교토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요청사항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스모그 발생 저감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낭비요인을 찾아 비용절약적인 에너지 이용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에너지 자문관」 제도를 활용해 이 프로그램의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며, 개별 가정의 성취도에 따라 최대 4,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www.toronto.ca/health)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개발할증 양도제도」를 통해 보전 개발지역의 균형 도모 (시애틀)
- ② 새로운 도심부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카고)

도시환경

- ③ 초등학생 대상 물질약 캠페인용 미술 작품 경연대회 개최 (뉴욕)

도시교통

- ④ 주요 교량에 결빙방지시스템 설치 (워싱턴시)
- ⑤ 실시간 교통상황을 동영상으로 중계 (뉴욕)
- ⑥ 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계획 수립 미국 Tempe시)

행.재정

- ⑦ 원스톱형 여행정보 웹사이트 개설 (일리노이州 스프링필드시)
- ⑧ 지방세 체납대책으로 「휴일징수」 실시 일본 후쿠시마縣)
- ⑨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 (플로리다州: 탤러해시市)
- ⑩ 행정목표에 대한 성과측정시스템 활용 (미네아폴리스市)
- ⑪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311호출 서비스 실시 (시카고)

① 「개발할증 양도제도」를 통해 보전·개발지역의 균형 도모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개발할증 양도제도(TDC; Transfer of Development Credits)」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균형 관리하는 토지이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추가 개발권리를 ‘판매하는 지역’과 이를 ‘매입하는 지역’으로 구분, 토지자원의 합리적 보호 및 추가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개발할증 양도제도는 첫째, 경관보호지역의 보전 및 도심공동화 진행 억제, 둘째, 도시근교 공공용지·생물서식지·생태계보호지역 확보 및 지정 용이, 셋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통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원 확보, 넷째, 개발할증 매입지역에 대한 예산지출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행정서비스수준의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현재의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 시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city.cityofseattle.net/dclu/planning/commdev/TDC/tdchome.htm)

② 새로운 도심부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시카고 중심지역계획(Chicago Central Area Plan)」이라는 도심부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83,000명에 이르는 도심부 인구가 2020년경에는 약 150,000명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도심주거공간을 확충한다. 둘째, 같은 기간동안 도심부의 고용이 현재의 65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약 100만평의 도심업무공간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미시간호수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공간 조성, 도심전역에 공원녹지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통 접근성도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서, 통근철도, 지하철 및 버스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심부를 10개의 커뮤니티로 나누어 구체적인 도시개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archrecord.construction.com/Default.asp)

③ 초등학생 대상 물절약 캠페인용 미술·작문 경연대회 개최 (뉴욕)

미국 뉴욕시 환경국은 2003년 3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제17회 물절약 캠페인용 미술·작문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의 주제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수자원 보전 부문은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 학교·가정에서의 물 절약, 시민의 삶과 도시성장을 위한 물의 가치 등을 다룬다. 두 번째로 상수공급체계 부문에서는 상수원의 중요성 인식과, 음용수 공급 과정의 이해를 다루며, 세 번째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관리 문제, 네 번째는 하·폐수 처리과정 및 폐기물 무단방류의 위험성을 다룬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시의 상수공급과 폐수처리과정을 이해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의미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수자원과 관련한 수업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www.nyc.gov/html/dep/html/news/artpoetryform.html)

④ 주요 교량에 결빙방지시스템 설치 (워싱턴시)

미국 미네소타주 교통부는 2002년 11월부터 워싱턴(Worthington)시 지역 4개 교량에 결빙방지시스템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 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해 도로표면 조건을 측정, 결빙이 예상될 경우 관계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교량에 설치된 분사기구를 이용해 원격으로 결빙방지 약품을 뿌릴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교량에서는 그동안 평균 12건의 결빙 관련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급작스런 도로조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동화시스템 사용으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w.zwire.com/site/news.cfm?BRD=2163&dept_id=438479&newsid=6667441&PAG=461&rfi=9)

5] 실시간 교통상황을 동영상으로 중계 (뉴욕)

미국 뉴욕시 교통국은 22대의 교통용 카메라를 이용해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촬영하고, 아침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채널 74번에서 이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시교통국의 교통관리센터는 주요 간선도로에 폐쇄회로 TV카메라를 설치해놓았는데, 이 카메라는 도시 주요 지점의 교통상황을 추적한다. 또한 시교통국의 홈페이지 방문자들도 교통흐름을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여행자를 위한 정보시스템(The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은 5개 지점에서 동영상과 스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 초기인 현재로는 교통상황을 중계하는 지점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교통용 카메라들은 교통 상황을 점검하는 교통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지점들의 교통을 보기 위해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교통용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의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시교통국 홈페이지의 ‘여행자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방문하면 된다. (www.nyc.gov/html/dot/html/travroad/atis.html)

6] 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계획 수립 (미국: Tempe市)

미국 애리조나주 Tempe市는 市역사상 최초로 차가 아닌 보행자의 이동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2020 종합교통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은 대중교통,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홀로 차량’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거지역에서 학교, 공원, 쇼핑지점까지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하기 쉽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가정에서 도보로 10분 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로를 신설, 확장하고 모든 주요 도로에 자전거전용차선을 설치하며, 급행버스 서비스 확충 및 경전철 건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은 조만간 공청회를 거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市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www.arizonarepublic.com/arizona/articles/0116transit160.html)

7 원스톱형 여행정보 웹사이트 개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市)

미국 일리노이주 교통국은 원스톱으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사이트 (www.illinoisroads.info)를 최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도로 위치 정보, 겨울 도로 상태, 여행자를 위한 안전 정보, 지도, 운송 허가증을 비롯한 각종 여행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도로 정보로는 주 전체의 도로 위치에 대한 각종 정보, 시카고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한 세부 정보, 주요 공휴일 기간동안의 도로 상황, 기상 예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겨울 도로 상태와 관련해서는 주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상태를 표시하는 지도와 전체 노선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겨울 폭풍 기간 중에는 대략 매 2시간마다 해당 정보가 갱신된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운송업자들은 통행이 제한된 도로를 미리 확인하거나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 여행정보, 고속도로 지도정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법률 정보도 얻을 수 있다. (www.dot.state.il.us)

8 지방세 체납대책으로 「휴일징수」 실시 (일본: 후쿠시마縣)

일본 후쿠시마縣은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체납액 증가로 인해, 일요일에도 지방세 체납자들을 개별 방문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휴일징수」를 2003년 1월 26일에 실시했다. 「휴일징수」에 따라 새로 마련된 휴일납세창구 7개소를 중심으로 지방진흥국 지방세무공무원 50명이 관할지역마다 체납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했다. 우선징수대상은 17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에 체납건수가 최다인 자동차稅다. 지방진흥국은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까지 납세창구를 설치, 납세접수와 상담업무도 병행중이다. 縣정부는 휴일징수를 통해 주민 전체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휴일납세창구 이용으로 납세자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河北新報, 2003. 1. 23)

9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 (플로리다주: 탤러해시市)

미국 플로리다주는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간극, 즉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1년 「디지털양극화 방지위원회(Digital Divide Council)」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정보센터를 설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새로운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포털 사이트는 600개 이상의 사이트를 목록으로 해 각 사이트들의 위치, 접속 수, 주소, 각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와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그 외에도 인터넷 접근방법에서부터 컴퓨터 교육정보, 정보기술분야 자격증 획득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센터의 개설과 디지털 양극화 방지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www.fcw.com/geb/articles/2003/0113/web) (www.digitaldividecouncil.com)

10 행정목표에 대한 성과측정시스템 활용 (미네아폴리스市)

미국 미네아폴리스市는 1999년 이래 市의 행정목표에 관한 성과측정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성과측정은 효율성 척도, 효과성 척도, 성과 척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시정(市政) 우선순위 설정이나 대(對)시민 정보제공을 통한 거버넌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돕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단순한 이용자로서가 아닌 이해당사자, 공생산자(共生産者)로서의 역할을 이해시킴으로써 대(對)시민 관계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www.ci.mpls.mn...s/performance measurement/index.asp)

④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311 호출서비스 실시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긴급구조를 위한 911 호출서비스와는 별도로 일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311 호출서비스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311은 긴급성이 없는 호출을 911에서 분리해 행정서비스와 결합시킨 새로운 호출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적시성(適時性)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311 호출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긴급성이 없는 치안서비스, 市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각종 행사정보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긴급하지 않은 치안서비스 요청:** 시민들은 911을 통한 긴급호출과 그에 상응하는 신속한 대응이 불필요한 경우 311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구급차를 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밤중 자전거 도난, 차량도난 방지경보의 작동, 주변 소음으로 인한 불편,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렸을 때 311 호출을 이용할 수 있다. 311 호출을 통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경찰관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잠재적인 범죄나 무질서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민들은 311 호출을 통해 다음번 경찰관-주민 회의일정도 안내받을 수 있다.
- **행정서비스 요청:** 시민들은 쓰레기통 처리나 뒷골목의 보안등 교체, 하수도 청소에 이르기까지 311 호출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市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의나 진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311 호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각종 행사정보 문의:** 1년 내내 市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311 호출을 통해 알 수 있다.

(www.cityofchicago.org/CommunityPolicing/Contact/311.html)

